

농촌국민학교 양호실 이용에 관한 조사

순천간전논문집 제3집, 1977.

곽명순

결론

전남 승주군과 광양군에서 지역적 특성을 농촌으로 한정하여 농촌 국민학교 아동의 양호실 이용율을 조사하기 위해 학급크기 24~30학급을 갖고 있으며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4개 국민학교를 선정하여 1977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양호실 이용율을 남여별, 월별, 학년별, 요일별 및 아동들의 호소내용별로는 외상, 내과질환, 피부병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남여별 이용율 조사에서는 남아가 53.45%로 여아 46.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학생수가 여아보다 적은 남아의 이용율이 높은 것은 의의있는 일이다.

2) 학년별 이용율은 6학년에서 다른 학년에 비해 훨씬 높은 25.83%를 나타냈으며 1학년은 11.61%로 가장 낮은 이용율을 나타냈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양호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월별 이용율에서는 6월에 26.32%로 가장 높았으며, 3월에는 22.6%를 보여 가장 적게 이용하였다. 국민학교 아동들이 봄에보다 교실밖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초여름에 양호실을 많이 이용하였다.

4) 요일별 이용율은 수요일이 18.67%로 가장 높았으며 토요일에는 13.13%로 가장 낮았다. 평일에 비해 토요일의 이용율이 낮은 것은 수업시간도 적으며 양호실도 오전중에만 개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호소내용별에 따른 이용율을 보면 내과질환에 의한 이용이 가장 많아 57.50%의 이용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외상에 의한 이용율로 36.14%였으며 피부병으로 인한 이용율을 6.3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학년 아동은 외상에 의한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학년에서는 전체적인 이용율 순위와 같이 내과질환에 가장 높은 이용율을 나타냈으며, 외상, 피부병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이 없는 농촌에서의 국민학교 아동은 내과질환을 가장 많이 호소하며 외상과 함께 주요 호소내용이 되고 있다.

국민학교 아동들의 양호실 인식도 및 이용도에 관한 연구